

-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울산우정혁신도시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한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일이 2013. 11.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그 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사항임

I 추진배경

- 우리구의 미래가 달려 있는 당면 현안사업인 울산우정혁신도시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각종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제시와 만족할 수 있는 사업 마무리 및 민원발생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

II 위원회 개요

□ 근거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 구성

- 구 성 :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4. 18)
- 위원선임
 - 위 원 장 : 권태호 의원
 - 부위원장 : 공석
 - 위 원 : 박태완 의원, 신성봉 의원, 이효상 의원, 고희근 의원, 김지근 의원, 추영환 의원
- ※ 정현희 의원 사임(2013. 7. 26.)
- 활동기간 : 2013. 4. 18 ~ 2013. 11. 30

Ⅲ 추진실적

일 시	내 용	비 고
2013. 4. 18.	특위결의안 의결, 특위위원 임명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4. 18.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2013. 4. 29.	특위활동계획서 작성관련 위원 간담회	
2013. 5. 1.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특위활동계획서 채택)	
2013. 5. 9.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현장방문활동)	업무보고(문화공보실) 약사제방, 공룡발자국
2013. 5. 13.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도시과, 건설방재과
2013. 5. 14.	특위활동계획서 본회의 승인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3. 6. 10.	민원발생지역 현장방문 (북산1동 신한그린 ~ 혁신도시 통로)	신한그린과 혁신도시 연결로에 계단설치 건의
2013. 7. 15.	서동고가차도 반대 집회장 방문 (소음·분진 해결요구, 특위회의요구)	
2013. 7. 18.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당면현안사항 협의)	
2013. 7. 23.	당면현안사항 위원간담회	
2013. 7. 25.	서동고가차도 건설 반대 건의문 채택	제159회 정례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3. 8. 8.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LH에서 부장,과장 2명 참석으로 회의 취소
2013. 8. 12.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LH 단장 불참으로 회의 취소
2013. 8. 13.	옥동~농소간 육교설치관련 입주예정 민과 LH와의 중재 간담회	주

(울산혁신도시건설특위 제9차부록)

일시	내용	비고
2013. 8. 14.	위원간담회(자료요구사항 정리, 사업별 담당위원제 지정)	
2013. 9. 11.	옥동~농소간 도로상 육교설치 여부 의견 조희 공문 발송(의회 → LH)	
2013. 10. 7.	서동고가차도 교통개선방안 주민설명회 (울산시청 주관)	중구컨벤션
2013. 10. 8.	서동고가차도 청원심사 소위원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
2013. 10. 10.	약사제방 전시관 공사시 제방 일부 훼손 여부 파악(위원장 외 3)	혜
2013. 10. 15.	약사제방 훼손관련 울산mbc 라디오 시사메거진 인터뷰(위원장 외 1)	
2013. 10. 16.	약사제방 절단부분에 대해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에 확인 공문 발송	
2013. 10. 22.	위원간담회(사업별 담당위원제 지정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등)	
2013. 10. 23.	약사제방 훼손관련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과의 간담회(위원장 외 2)	LH울산사업단 회의실
2013. 10. 29.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저류지, 약사제방 현장방문 활동)	
2013. 10. 31.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혁신도시추진현황 보고)	
2013. 11. 15.	위원간담회 (추진방향 논의 등)	

IV 활동성과

○ 서동 고가차도 건설 반대 건의문 채택 등 지역주민 정서 반영

-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 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서동 고가차도 건설계획은 도시미관 저해, 소음, 분진 발생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고가차도 건설 인근 주민은 물론 향후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 예정 주민들까지 고가차도 건설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음
- 지역 주민들의 무더운 여름 천막농성 등 고가차도 건설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가차도 건설을 강행하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 중구청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차원의 고가차도 건설반대 건의문을 채택·송부하여 지역 주민의 정서 반영 및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당초 고가차도 건설계획을 회전식 평면 교차로 설치로 변경되는데 일정부 분 역할 수행과 함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우수 저류시설 규모 확대 요구 등 주민안전 도모 노력

- 당초 LH 울산혁신도시 사업단에서 설치한 혁신도시 내 우수 저류시설 5개소 48,000^{m³} 규모는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 시 도심지 침수 등 주민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우수 저류시설 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 이에 따라 약사천(27,570^{m³}), 복산천(20,910^{m³}), 유곡천(16,380^{m³}) 등 3개소 64,860^{m³} 규모의 우수 저류시설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향후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재난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음

○ 문화재 관련 분야 적극적인 의견 제시

- 혁신도시건설 부지 내 주요 문화재로는 약사제방, 약사우물,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 등이 있음
- 이러한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약사제방 사적지정 요구, 약사우물 원형복구 요구,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 주변 공원 조성 시 공룡발자국 화석 지면 수직이동, 공룡모형 제작설치 등 활발한 의견 제시를 하였음
- 특히 약사제방 전시관 건립공사로 인한 유구 훼손부분에 대하여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현장방문 시 간담회를 통해 강력 항의 하는 등 지역 문화재를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 각종 시설 공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

- 혁신도시 조성지형이 경사지로 인하여 부지 조성 후 경사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미관저해 및 붕괴 등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LH 측에 공사 시행 후 발생하는 법면에 대해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줄 것과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사면붕괴 등의 발생이 되지 않도록 경사면 환화 등의 조치 강구 요청
- 부지 조성시 발생한 지면 단차로 인해 우수기에 토사가 우수구에 유입되어 우수구 막힘 등의 문제와 우수관로의 경사도와

맨홀 위치가 맞지 않아 정상적인 우수 흐름이 되지 않는 문제
점 등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 실시로 문제 해결을 당부함

- 혁신도시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문제, 유곡로 오수관로 문제, 옥동 ~ 농소간 도로 육교설치 문제 등 각종 민원발생 사항에 대하여 LH 및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줄 것을 촉구

V 향후계획

○ 특위 추진업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지속 추진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그 동안 혁신도시특별위원회에서 맡아 온 역할을 혁신도시 최종 준공 시까지 문화재 부분, 법면조성부분, 각종 민원발생사항, 우수저류시설 규모, 토사로 인한 우수구 막힘 문제 등 분야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역할 분담을 하여 연속성 있는 업무 추진

○ 유관기관 간 업무체제 지속 유지로 성공적인 마무리

- 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중구청, LH울산혁신도시사업단과 중구의회와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와 상호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 등으로 중구의 미래가 달려 있는 혁신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함

○ 각종 민원발생 적극 대처 필요

- 입주예정주민 및 혁신도시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도로변 소음

문제, 유곡로 오수관로 문제 등 각종 민원발생 사항에 대하여 민원발생 원인과악 및 행정기관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대 주민 면담과 설득 등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원만한 민원해결 기대

○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 역할 유도

- 최적의 정주여건과 수준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도시가 되도록 전국 11개 혁신도시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혁신도시 건설 취지에 맞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 필요

VI 요구사항

○ 문화재 분야

- 약사제방 사적지 지정 및 제방유적 전시관의 차질없는 추진
-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에 대하여 전사 또는 수직이동 등의 방법으로 지면에 설치하고 다양한 공룡모형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과 학생 등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존 공룡화석 주변은 성토 후 주차공간으로 조성하여 공룡화석 공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구함
- 약사우물은 최대한 원형 형태의 복원을 하여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우수저류시설 분야

- 우수저류시설은 당초 5개소 48,000m³ 규모에서 추가로 3개소 64,860m³ 규모를 증설하였으나, 향후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우수저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부 지

역에 대하여 저지대 주민안전을 위하여 추가 증설방안을 강구하기를 요구함

○ 일반 시설 분야 등

- 혁신도시 건설 현장이 지형의 고저차로 인해 발생한 법면에 대하여는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조성해 주시고, 우수 침투로 절개지 등의 붕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완만한 법면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람
- 우수구 막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지조성시 생긴 법면 부분에 대하여 토사가 우수구로 흘러들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우수구 구매 불량으로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혁신도시 준공 후 LH울산혁신도시사업단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을 이관 받을 때에는 향후 구예산 투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 후에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 및 이행여부 확인 후 이관 받기 바람

VII 참고자료

특별위원회 보도자료

연합뉴스 (2013-04-18)

중구의회 ‘혁신도시건설 특별위’ 구성

울산 중구의회는 18일 제1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문화유적 관리 등 울산혁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도로개설 요청 등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 등을 한국토지주택(LH) 공사에 요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지역주민 공청회 등을 열어 혁신도시 완성 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뉴스 (2013-05-01)

중구의회, 혁신도시건설 특위 본격 활동

울산 중구의회 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다.

중구의회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호)는 1일 제2차 회의를 개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최종 채택했다.

특위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올해 연말 사업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지 조성, 각종 시설물 설치, 문화재 보호대책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점검 및 현장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또한 특위는 저류지 확대설치 방안, 약사제방유적지 사적지정 및 전시관 건립 방안, 유곡동 공룡발자국 보존 방안, 서동주민대책위 민원사항, 친환경 법면조성 및 도로변 소음문제 해소 방안 등 중점활동 대상사업 5가지를 선정한 뒤 사업 별로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특위 활동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권태호 위원장은 “혁신도시 사업 완료 전에 현장점검 활동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요구 등으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다”며 활발한 특위 활동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4월 18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으로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울산매일 (2013-05-02)

중구의회 혁신도시건설특위 ‘본격 활동’- 사업별 2개 분과위 구성

울산시 중구의회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호)는 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최종 채택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혁신도시건설특위는 혁신도시 부지조성, 각종 시설물 설치, 문화재 보호대책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점검과 현장활동을 병행해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위는 저류지 확대설치방안, 약사제방 유적지 사적지정과 전시관 건립방안, 유곡동 공룡발자국 보존방안, 서동주민대책위 민원사항, 친환경 법면조성과 도로변 소음문제 해소방안 등 중점 활동 대상사업으로 다섯 가지를 선정해 사업별로 2개의 분화위원회를 구성해 특위 활동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권태호 위원장은 “혁신도시 사업 완료 전에 현장점검 활동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요구 등으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경상일보 (2013-05-02)

중구의회 혁신도시특위 대상사업 중점활동 선정

울산 중구의회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호)는 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혁신도시내 저류지 확대설치 방안, 약사제방유적지 사적지정 및 전시관 건립 방안, 유곡동 공룡발자국 보존 방안, 서동주민대책위 민원사항, 친환경 법면조성 및 도로변 소음문제 해소 방안 등 중점활동 대상사업 다섯가지

를 선정했다.

혁신도시특위는 올해 연말 혁신도시 조성사업 종료를 앞두고 부지조성, 각종 시설물 설치, 문화재 보호대책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난달 18일 구성됐다.

울산제일일보 (2013-05-02)

중구의회 혁신도시 특위 본격활동

울산시 중구의회가 1일 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최종 채택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는 연말 사업종료를 앞두고 부지조성, 각종 시설물 설치, 문화재 보호대책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현장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저류지 확대설치 방안, 약사제방유적 사적지정 및 전시관 건립 방안, 유곡동 공룡발자국 보존 방안, 서동주민대책위 민원사항, 친환경 법면조성 및 도로변 소음문제 해소 방안 등 중점활동 대상사업 5개를 선정,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특위 활동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권태호 위원장은 “혁신도시 사업 완료 전에 현장점검 활동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요구 등으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다”며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18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으로 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울산신문 (2013-05-02)

중구의회, 혁신도시특위 활동 본격화

- 저수지 확대 설치 등 중점 활동 대상사업 확정, 2개 분과위 구성도 -

울산 중구의회가 울산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역 주민 건의 사항 요구 등을 위해 결성한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호 · 이하 혁신도시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혁신도시특위는 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최종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혁신도시특별위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올 연말 사업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지 조성, 각종 시설물 설치, 문화재 보호대책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점검 및 현장활동을 병행해 향후 중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감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특위는 중점활동 대상사업을 ▲저류지 확대설치 ▲약사제 방유적지 사적지정 및 전시관 건립 ▲유곡동 공룡발자국 보존 ▲서동주민대책 위 민원 ▲친환경 법면조성 및 도로변 소음문제 해소 등 5가지로 선정, 사업별로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특위 활동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지역주민 공청회 등을 열어 혁신도시 완성 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권태호 위원장은 “혁신도시 사업 완료 전에 현장점검 활동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요구 등으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다”며 “활발한 특위 활동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의회는 지난 4월 18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태호 위원

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으로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경상일보 (2013-05-10)

중구의회 혁신도시특위 약사제방유적 등 현장방문

울산 중구의회 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호)는 9일 혁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아 혁신도시 내 약사제방 유적지와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에 대한 보존방안을 찾는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특위위원들은 약사제방 유적지와 공룡발자국 화석 등 지역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철저한 보존 대책을 중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문했다. 또 건립이 추진 중인 약사제방 전시관 규모를 확대하고 공룡발자국 주변지역 공원화 사업을 평면으로 계획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특위는 오는 13일 혁신도시건설 추진상황 전반과 저류지 확대설치 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울산매일(2013-05-10)

중구의회 혁신도시건설특위, 문화재 관련 현장방문

울산시 중구의회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호)는 9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혁신도시 문화재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방문 활동을 가졌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울산시 문화재자료 제12호로 지정돼 있는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에 대한 보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후 문화유적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했다.

울산신문 (2013-05-10)

약사 제방유적지 보존방안 논의

- 중구의회 혁신도시건설특별위 3차 회의 -

울산 중구의회 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호)는 9일 1제3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혁신도시 내 문화재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혁신도시 부지조성 과정에서 발견된 약사 제방유적지 사적지정 및 보존방안과 전시관 건립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 울산시 문화재자료 제12호로 지정되어 있는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에 대한 보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어 특위는 혁신도시 건설현장 내 문화유적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벌였다.

현장방문에서 특위 위원들은 약사제방유적지와 공룡발자국 화석 등 지역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철저한 보존대책을 집행부와 LH공사에 주문했다. 특히 약사 제방 전시관 규모를 확대하고 공룡발자국 주변지역 공원화 사업에 대해 평면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13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혁신도시추진상황 전반과 저류지 확대설치 방안에 대해 추진상황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울산매일 (2013-06-19)

무주골 공룡발자국 화석 성토해 원형보존 바람직

중구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 주변이 혁신도시 건설로 골짜기였던 무주골의 모습은 완전 사라지고 웅덩이처럼 지면보다 10m 가량 낮은 곳에 위치해 원형 보존보다는 성토를 통해 보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공룡발자국 화석 주변이 낮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될 우려도 높아 성토를 통한 화석 보전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8일 오후 1시 30분 중구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 일대

주변은 혁신도시 아파트 건설과 도로 기반공사가 한창이다.

공룡발자국 화석은 지면보다 10m 가량 낮은 곳에 파란 덮개로 덮여 있어 그냥 봐서는 화석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화석 주변으로 내려가 보니 빗물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1군데 있었다. 하지만 직경이 30cm 정도에 불과해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시 웅덩이처럼 돼 있는 화석 주변이 침수될 우려도 높아 보인다.

또 테크를 설치해 화석을 보러 내려 오도록 계획돼 있지만 무주골의 옛 모습을 간직하지 못한 화석의 원형 보전은 무의미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호)는 “공룡발자국 화석이 있는 무주골 골짜기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옛 자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바뀐 데가 화석 주변이 웅덩이처럼 변해 화석의 원형 보전은 별 의미가 없게 됐다”며 “게다가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도 높기 때문에 원형 보존도 좋지만 원형 그대로 떠낸 후 그 자리를 성토해 지면 상단부에 화석을 설치해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태호 위원장은 “성토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근린공원 조성 면적과 어울려 공원이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현재 공룡알 모형과 어린이 체험마당 건립에 불과한 공원에 공룡모형도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어 공룡 화석과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근린공원 명칭도 울산공룡공원으로 사용해 청소년과 어린이

들에게 선사시대의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현재 조성 중인 근린공원에는 주차장 건립 계획도 없는데 시민들이 공룡발자국 화석을 보러 오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며 “성토를 통해 화석을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면 주차장 건립을 위한 공간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산혁신도시건설 특위는 공룡발자국 화석 주변을 성토를 통해 화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문화재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한편 울산시에 유곡동 공룡발자국 현상변경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매일 (2013-07-26)

서동고가차도 반대 건의안 채택, 중구의회 권태호 의원 대표발의

울산시 중구의회가 서동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서동고가차도 건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구의회는 25일 제15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권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 의원이 찬성한 서동고가차도 건설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고가차도 건설 대안으로 지하차도 또는 회전식 교차로 설치를 제안하며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구의회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소음 및 분진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은 물론 혁신도시 입주예정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서동고가차도 건설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LH가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고가차도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회전식 교차로 또는 지하차도 건설을 즉각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또 중구의 관문인 서동지역에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서동고가차도 건설을 당장 중단하고 LH는 주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 조속한 시일 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중구의회는 LH에 혁신도시내 육교설치, 방음벽, 소음 등 각종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 공사 준공 전 모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적극 해결할 것을 건의했다.

국제신문 (2013-10-11)

울산혁신도시 삼국시대 독 유적 훼손 논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산혁신도시 내에서 발견된 유적을 일부만 원형 보존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구간이 보존지역에서 제외된 데다 이미 공사로 인해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여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1일 LH가 울산혁신도시 부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약사제방(삼국시대 독) 유적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울산혁신도시 건설사업 과정에서 발견된 약사제방 유적은 7세기 말 축조된 것으로 최초의 삼국시대 관개시설로 확인됐다.

특히 이 유적은 전북 김제 벽골제(사적 제11호), 충북 제천 의림지, 경남 밀양 수산제 등 삼한시대 저수지 유적과 달리 발굴을 통해 축조시기와 기법 등이 처음으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방 축조를 위해 성토된 구간은 토기와 나뭇가지, 조개 등으로 바닥을 다지고 그 위에 점토를 번갈아 쌓아 접착력을 높인 부엽·판축공법을 사용해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에 울산시와 중구청, 중구의회는 LH 측에 원형보존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제방 유적 상당 부분이 절토됐다. 더욱이 문

화재청의 사적지정 심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형이 완전히 없어진 곳도 있다.

이에 대해 LH는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LH는 제방유적에서 부엌·판축공법이 사용된 일부 구간을 본 떠 그 자리에 건립될 전시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공개할 경우 이차적인 훼손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영구 보존이 가능한 이 같은 방식을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경상일보 (2013-10-10)

약사제방유적 일부만 원형보존 논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산혁신도시 내에서 발견된 약사 제방유적의 일부 구간만 원형 보존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역사적 가치가 높은 구간이 원형 보존지역에서 제외된데다 이미 공사로 인해 훼손돼버린 상태여서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호 의원·이하 혁신도시특위)는 10일 울산혜인학교 뒤 약사 제방유적 발굴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가 중구청·중구의회를 요구를 묵살하고 울산혁신도시 부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약사 제방유적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울산혁신도시 건설사업 과정에서 발견된 약사 제방유적은 7세기 말 축조된데다 삼국시대 관개시설로는 최초로 확인됐으며, 전북 김제의 벽골제(사적 제11호), 충북 제천의 의림지, 경남 밀양의 수산제 등 삼한시대 저수지 유적과는 달리 발굴을 통해 축조시기와 기법 등이 처음으로 밝혀진 유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제방 축조를 위해 성토된 구간은 토기와 나뭇가지, 조개 등으로 바닥을

다지고 그 위에 점토를 번갈아 쌓아 접착력을 높인 부엽·판축공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관심을 모았다. 울산시와 중구청, 중구의회 등도 원형보존을 요구해 왔다.

혁신도시특위 박태완 의원은 “울산의 유물인 약사제방의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고 수차례 촉구를 했는데도 LH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절토했다”며 “문화재청의 사적지정 심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형을 완전히 없애버린건 상식적으로 안맞다”고 반발했다.

특위 서경완 의원도 “일본의 경우 제방유적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지어 원형을 보존하는데 LH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적을 원형대로 보존해야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LH는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LH는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제방유적에서 부엽·판축공법이 사용된 일부 구간을 전사(제방 표면 일부를 본뜬)해 이 자리에 건립될 전시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원형을 그대로 보존·공개할 경우 이차적인 훼손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영구 보전이 가능한 전사 방식을 택했다”며 “원형과 거의 비슷한 전사품이 전시관에 전시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 제방유적이 향후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으로 지정받을 경우 문화재법 등에 따라 이 일대에서의 건축물 행위가 일부 제한되고, LH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원형이 아니라 전사할 경우 사적으로 지정되는 면적을 일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LH가 사업성을 등을 이유로 제방유적 전체를 원형 보존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상일보 (2013-10-14)

혁신도시 옥동 ~ 농소로에 육교 설치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산혁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옥동 ~ 농소간 도로에 당초 계획대로 육교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주민과 LH간 빚어졌던 갈등(본보 8월6일자 7면 보도)이 마무리됐다.

LH는 울산혁신도시의 시작부분인 호반베르디움(346가구)·LH공공분양아파트(536가구)에서 학교, 상가 등이 밀집한 주요 상권으로 이동하는 왕복 10차선의 옥동 ~ 농소간 도로에 육교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울산시가 옥동 ~ 농소간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할 계획을 세우고 최근 울산지방경찰청에 횡단보도 설치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고, 울산경찰청이 이를 받아 들임에 따른 결정이다.

LH는 최초 이 구간에 자연친화형 육교를 설치할 예정이었다. 육교가 도시미관을 해칠 것을 고려해 자연데크 및 엘리베이터도 설치되는 등 디자인도 가미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교통안전시설물 심의를 울산지방경찰청에 신청해 심의 통과되면서 육교대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주민들은 LH가 설명회 등의 절차도 없이 갑자기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해 왕복 10차선의 농소 ~ 옥동 간 도로를 건너야 하는 상황이 돼 교통사고 우려가 커졌다는 대거 반발했다.

LH 관계자는 “당초 농소 ~ 옥동 간 도로에 육교를 설치하려 했지만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횡단보도 설치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될 경우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최초 계획인 육교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사매일 (2013-10-17)

중구의회, 약사제방 원형보존 착수

중구의회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호)가 훼손된 약사제방의 원형 보존을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혁신도시건설특위는 16일 전시관 건립 과정에서 훼손된 혁신도시 내 약사제방의 원형 보존을 위해 문화재청에 약사제방 원형 보존 방안에 대한 의견 조 회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위는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울산혁신도시 내 약사제방 유적의 핵심부분 인 제방을 보존하기 위한 전시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약사제방이 훼손돼 발 굴 초기의 원형을 찾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약사제방의 핵심부분이라는 것은 토기와 나뭇가지, 조개 등으로 바닥을 다지고 그 위에 점토를 번갈아 쌓 아 접착력을 높인 부엽·판축공법을 사용한 부분이라고 특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LH측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원형을 그대로 보존·공개할 경우 2차 적인 훼손이 이뤄질 수 있어 영구 보전이 가능한 제방 단면을 전사한(잘라낸) 후 전시관에 보존한다는 입장이다.

중구의회도 제방유적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지어 원형을 보존해야 한 다고 밝혔다.

특위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아 약사제방 원형 보존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 나 지난해 문화재위원회 제8차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변경된 사항 에 따라 LH에서 약사제방 단면을 전사해 제방 원형을 훼손하면서 전시관 공 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위는 문화재청에 전사 후 제방 단면을 훼손해도 되는지, 아니면

전사된 단면을 보존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의견 조회를 보냈다.

특위는 또 약사제방 유적 발굴 당시 LH로부터 용역을 받은 (재)우리문화재연구원 담당자와 현장에서 발굴당시 제방유적 상태와 현 상태에 대해 비교 분석을 위한 자문을 받기로 했다.

권태호 위원장은 “문화재청의 의견 조회 회신과 우리문화재연구원의 약사제방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에 원형 보존 방안을 강력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 (2013-10-29)

중구의회 약사제방 현장점검

29일 울산 중구의회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호)가 혁신도시 내 약사제방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현장방문활동에서 특위 위원들은 집행부와 LH 울산혁신도시사업단에 대해 약사제방유적지 단면부 훼손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혁신도시 특위에서는 10월 31일 제8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와 LH울산혁신도시사업단으로부터 혁신도시 추진상황 전반과 문화재분야, 저류지 확대설치 방안, 오수관로 설치 문제 등에 대해 추진현황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울산매일 (2013-10-30)

중구의회 혁신도시건설특위, 약사제방 등 문제 파악

울산 중구의회 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호)는 29일 제7차 회의를 열어 혁신도시 약사제방과 공룡발자국 화석, 우수저류조, 법면부 등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했다.

(울산혁신도시건설특위 제9차부록)

특위는 집행부와 LH울산혁신도시사업단에 대해 약사제방 유적지 단면부 훼손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또 연말 혁신도시 조성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시설물의 완벽한 설치, 경사지와 절개지 법면정리, 각종 민원발생 사항 해소 등 사업 마무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